

# 군산시, 추경확보 역량집중

### 강임준 시장 국회방문, 예결위 의원 만나 지원 요청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상권활성화 등 당위성 설명

군산시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1일 강임준 시장이 국회를 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핵심 의원들을 만나 주요 예산확보 지원 요청에 나섰다.

국회가 코로나19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민주 통합의원 모임 예결위 간사 김광수 의원, 안호영 의원 등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군산시가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89억원 ▲동네문화카페를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상권활성화 지원 16억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25억원 등이다.

강시장은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고령산업지구지역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예결위 주요 의원들에게 설득했으며,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에 활발히 유통되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한 자영업자 매출 증대가 국세 확충에도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강조하며, 상품권 발행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이어 동네문화카페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설명하며 정부 추경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급변 정부 추경 예산은 코로나 재난 대응 추경으로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원 규모 추경안 심사는 이날 17일까지인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11일 강임준 시장이 국회를 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핵심 의원들을 만나 주요 예산확보 지원 요청에 나섰다.

# 익산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난 해법' 찾기

### 일방통행·홀짝 주차제 제정 공영주차장 조성 등 추진 방침

익산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밀집지역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구역에 대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지난해 9월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해 올해 5월 용역이 완료되면 시내 지역을 대상으로 일방 통행 및 홀짝 주차제 지정, 공영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공동이용 등 단계별 주차환경개선 시행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주차난 및 교통흐름 방해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방통행 및 홀짝주차제를 운영한다.

그리고 익산역 회전교차로에서 모현6편한세상아파트 사이의 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 통행을 지정하고, 장신휴먼시아단지 아파트 앞 도로의 양방향 주차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홀짝주차제 지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아울러 영등동과 중앙·남중·모현동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는 32개의 포켓형태의 도심권 주차장을 조성하고 마동사거리에서 등기소사거리의 도로 차선을 조정하여 양 방향에 100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한다.

또한 영등동 및 모현동 등 상가 밀집 지역에는 주민과 상가번영회와의 간담을 통해 도로와 인도폭을 조정하여 개구리 주차 형태의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등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도서지역 전담 연료운반선 본격 운영

도서지역연료운반선이 진수식을 가지며 많은 도서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지난 10일 선박건조사인 금강중공업에서 군산시 도서지역 연료운반선인 '군산아리울

호' 진수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난 2018년도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지방비를 포

함해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건조중인 연료운반선은 80톤급 개방형 차도선으로 길이 35M, 폭 9M, 최대속력 14노트, 승선인원 19명으로 관내 9개 도서에 LPG, 석유 등 생필품을 안전하고 정기적으로 운송 공급하기 위한 선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센터 2층 교육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면마스크 만들기를 진행했다.

# 면 마스크 만들기 '한마음'

### 익산시 자원봉사자센터 400여개 제작 화제... 시민에 배부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센터 2층 교육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면마스크 만들기를 진행했다.

관내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자원봉사자와 시 관계자등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마스크 제작에 앞서 코로나 19 예방수칙안내와 함께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후 작업을 실시했다.

3일간 만들어진 면마스크는 총 400여개로 면마스크 1개와 교체용 필터 3개를 1세트로 만들어 익산 시민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늘사랑봉사단 이영의 단장은 “작은 재능이지만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분들을 생각하며 한뼘한뼘 마스크를 제작했다. 어서 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엄양섭 이사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상황 극복에 동참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익산시민 모두가 함께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단체들과 연계해 코로나19예방캠페인 및 소독·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2020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공모 선정

익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작은 도서관에 전문 사서를 파견하여 작은 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간의 연계 협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시립도서관은 2명의 사서를 채용해 관내 사립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파견하여 작은 도서관들의 운영 방식을 개선 지원할 예정이다.

채용된 사서는 관내 작은도서관 5개관을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하며 자료 선정과 수집·정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및 실무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독서문화환경을 위해 지역 곳곳에 조성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문화 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한방난임 치료지원

군산시보건소는 2020년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 치료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방 난임 치료는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효과제고를 위한 한방치료를 말하며 가입기 여성의 건강 증진으로 임신성공 및 출산율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오는 25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해 군산시 한방난임심정위원회에서 최종대상자를 30명 선정한다.

한방 난임 치료는 기본원칙에 따라 6개월 정도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 1인당 180만원 한방 난임 치료가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및 정자검사결과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이며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다자녀 가정·공동주택 상수도요금 감면혜택 확대"

### 한동연 익산시의원 발의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은 다자녀 가정과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제223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동연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익산이 아이 키우기 좋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물 쓸 일이 많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은 체감도 높은 시책인 만큼 자녀수에 따라 감면액을 2단계로 차등 상향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혜택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월 사용요금



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단독 계량기 수용가에 대한 감면혜택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모든 감면 대상자들이 형평성 있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2,950여 세대가 50~100%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